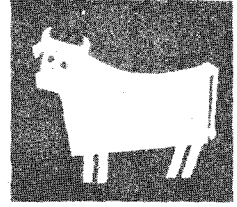


축산업계 동향



양계 산물의 소비촉진운동 시급하다

축산진흥회의 적극적인 참여 요망

— 5일 축산관련잡지 경영자 간담회 —

지난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축산관련 잡지 경영자들의 양계산업 진흥을 위한 간담회가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시현(종합축산사), 장창환(축산경영사), 오무웅(내외축산사), 정효식(현대양계사, 대리참석), 박상중(축산진흥회 홍보실, 대리참석)씨와 본회의 오세정 회장 및 노영한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오세정 회장은 본회의 급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러한 사업의 보다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축산매스컴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충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과잉생산으로 인한 양계업계의 불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 되었는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촉진의 유도만이 가장 좋은 타개책으로 이러한 소비촉진 운동에 전 양계인은 물론 축산진흥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는 의견으로 결론을 모았다.

닭, 돼지고기등에 각종 지원 강화

6개부처 합동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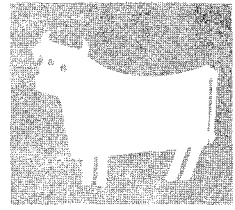
— 신부총리 안정기반 재정비 보강 —

정부는 22일 경제기획원에서 재무·상공·농수산·건설·동자부등 6개경제부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주요 경제시책을 밝혔다.

신현확 부총리겸기획원장관은 올해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경제안정의 기반자체를 재정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

난해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되풀이 하지않기 위해 성장율을 9%로 낮추어 잡고 모든 시책을 여기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합동회견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식료품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생산체제를 재정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채소류와 닭, 돼지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보완대책으로 농업기계 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수입정책에 탄력성

— 수익성낮은 품목은 점차 개방 —

이희일농수산부장관은 정부의 수입자유화정책이 農産物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適用되지 않는다고 指適, 앞으로 국내생산에도 불구하고 작황이나빠 감산이 우려되는 品目에 한해서만 수입하여 비축하되 수입농산물은 農民들의 生産能力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고 差額으로인한 수익금은 국내생산기반확충과 증산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22일 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에서 농산물수입시책의 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히고 長期的으로보아 農家所得에 크게 기여하는 品目を 除外하고 國內生産이 불가능한 품목, 국제경쟁력이있는 품목, 국내 생산여건상 자급전망이 흐리고 수익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수입을 개방하여 수급원활과 가격안정을 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유가 인상 영향

—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무협은 최근OPEC (석유수출국기구)의 유가인상 결정에따라 내년도 세계경제는 불황이 심화되고 국내인플레이는 더욱 가속화돼 수출경쟁력을크게 약화시킬것이라고 우려, 이의 대책을 촉구했다.

무역협회가 분석한 OPEC의 유가인상

과 그영향에 따르면 내년도 유가가 14.5%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 원유도입가격은 연평균 10.4%인상돼 제조업 원가에 1.2% 상승효과를 줌으로써 내년도 도매물가에 2.0%, 80년도에는 2.5%의 연쇄적인 추가인상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협은 또 내년도 原油도입 추가부담은 약2억 6천만달러에 달하고 석유류제품가격은 9.8%, 전력요금은 4.9%의 인상효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세계경제는 인플레이를 우려한 선진국들의 안정화정책으로 당초 3%의 낮은 성장으로 계획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성장이 더욱 낮아지고 고용사정이 악화됨과 함께 보호주의는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우리나라수출증대는 더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油價인상과 그파급효과 분석

	단위	79년	80년
原油도입가	%	10.4	14.5
原油도입추가부담	억(달러)	2.6	4.0
제조업원가	%	1.2	1.3
석유류제품가격	%	9.8	13.6
전력요금	%	4.9	6.8
도매물가	%	2.0	2.5

탄력관세율적용 세율 대폭 인하

— 원자재 20개 품목, 공산품 30개 품목 —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과 물자수급의 원

축산업계 동향

활을 위해 물가비중이 큰 50개 주요원자재와 공산품에 대해 탄력관세율을 적용 관세율을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중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내설비능력이 부족한 주요 원자재와 공산품의 원활한 수급이 중요하다. 고철·원목등 50여개 품목을 선정, 물가평형관세와 관세할당제를 적용하여 기본관세율에서 최고 50%「포인트」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관계당국자는 50개대상품목은 국내물가 파급효과가 크고 설비능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20여개 원자재와 30개생필품, 공산품이 선정되었다고 밝히고 탄력관세적용으로 이 중 대부분이 무세 또는 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세자는 현행관세법상 적용될 수 있는 탄력관세는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물가평형관세조항(관세법15조)의 계절관세와 물자 수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수량까지 기본관세율에서 50%「포인트」까지 내릴수 있는 관세할당제가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의 계절변동이 심한 농수산물과 일부 생필품 국제가격변동폭이 큰 일부원자재에 대해서는 물가평형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관세할당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의 대부분이 무세또는 5%의 낮은세율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탄력관세율의 적용은 관계부처별로 품목을 선정, 재무부와 협의한뒤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관세당국은 지난해 관세법개정으로 평균기본관세율이 36%에서 25%로 11%「포인트」나 내린점을 감안 관세수입의 결함을 되도록 줄이기위해 대상품목을 30여개미만으로 축소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영양사료연구회 기술강습회 개최

미원주식회사와 공동으로
- 1979년 정기총회도 -

제4회영양사료 기술 강습회가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강면희)와미원주식회사(사장:임철수) 공동주최로1월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그랜드 호텔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사료 공장 및 제약회사 기술자, 한국영양사료 연구회 회원과 관련인사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강습회에서는 서울농대 한인규교수가 「아미노산 영양」에 대하여 축산시험장 강태홍과장이

「저질 조사료의 사료가치 증진」에 대하여 중앙대 맹원재교수가 「반추위내에서 탄수화물의 대사」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한편 이날 강습회에 앞서 거행된 한국영양사료 연구회상 시상식에서는 사료제조업분야에서 유창열(중앙축산사료 대표)씨가 사료기술분야에서 강태홍씨가, 동물약품분야에서 권태영(삼우화학 상무이사)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이날 강습회가 끝난후 한국영양사료연구회 1979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

축산업계 동향

는데 이자리에서 강면희회장과 유창열사장은 한국 영양사로 연구의 발전을 위해 금일봉을 희사하였다.

한국동물약품협회 78년도 정기총회

— 최 죽송씨 회장으로 선출 —

한국동물약품협회의 78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동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79년도 사업계획, 예산 검토가 있은뒤 만기가된 현 임원의 개선 작업에 들어가 최죽송(한풍산업 주식회사 대표)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부회장에는 이완상(삼우화학 대표) 강승조(이글 케미칼 대표)씨를 선출하였다.

이어 포상순서에서 김강식(농수산부 축산국장), 황인옥(서울시 농축과장), 구연우(경기도 축정과장), 한태우(가축위생연구소 검정화학과장), 김석호(농수산부 가축위생과), 이윤섭(조일상사 대표)씨가 감사패를 수여받았으며 직원 김광자씨가 공로패를 받았다.

한편 이날 금년도 동물약품업계의 외화 배정액은 1,280만불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죽송 회장)

유윤수, 전휴상회장 EPB 및 농수산부 방문

— 원유가 소급인상을 건의 —

축산단체연합회 유윤수회장과 한국낙농협회 전휴상회장 신은범 사무국장은 1월 18일 농수산부 및 경제기획원장, 차관을 방문하여 현재 축산업의 당면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특히 생산비 이하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낙농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원유가를 소급하여 인상해 줄것을 요구하여 호의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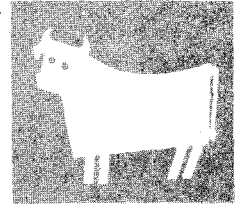
농수산물 대폭 수입자유화

금년부터 국제가 1.5배 넘는 품목
— 닭고기는 국제가의 1.7배 —

정부는 작년 물가양등을 선도해 온 식품 가격안정을 위해 금년부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1.5배 수준을 넘는 농축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정부는 금년부터 국제가격의 1.5배 수준에서 품목별 목표가격을 설정, 국내가격이 이 목표가격을 넘을 경우 수입을 자유화하되 이 때문에 국내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증산의욕이 감퇴되는 것을 막기위해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만큼 관세를 부과, 국내가격을 적정선에서 유지하는 차액관세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닭고기의 국내가격(1월부터 11월



까지 평균)은 톤당 99만 2천원으로 수입 가격(CIF) 58만 3천 5백원의 1.7 배에 달하는 것을 비롯, 쇠고기는 5.5배, 고추는 7.8배, 참깨는 4.2배, 낙화생은 2.7배, 쌀은 1.9배, 마늘은 1.7배에 이르는 등 10개 주요 농축산물의 국내가격이 모두 수입가격의 1.5배를 훨씬 넘고 있다.

정부는 이와같은 농축산물의 수입 및 비축확대와 함께 쌀 중심으로 짜여진 양곡수급 계획을 식품수요 구조 변화에 맞도록 종합적인 식품 수급계획으로 발전시켜 운용키로 했다.

농축산물가격비교

품 목	단위	국내가격(1~11월 평균)	수입가격(CIF)	배 수
쌀	t	375.0	197.4	1.9
보리	"	202.7	95.6	2.1
콩	"	334.7	128.7	2.6
옥수수	"	123.3	58.7	2.1
고추	"	5,464.5	700.5	7.8
마늘	"	1,279.7	752.8	1.7
땅콩	"	1,175.7	435.2	2.7
참깨	"	1,788.9	425.9	4.2
쇠고기	"	3,766.7	684.9	5.5
닭고기	"	992.0	583.5	1.7
치즈	"	4,200.0	1,619.9	2.6
분유	"	2,450.0	377.3	6.5

〈註: 쌀의 국내가격은 수매가격/단위: 千원〉

식료품수입 민간업자에게도 개방

닭고기 등 9개품목은 점차적 개방
쇠고기 10만톤 수입

정부는 올해 식료품가격을 일반소비자 물가와의 별도로 10%이내로 안정시키기로 하고 채소류, 생우유등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내需給과 국제경쟁력을 감안, 과감히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다.

9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식료품가격 안정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달청, 축산진흥회등 정부기관만이 맡아왔던 식료품수입을 민간업자에게 개방, 바나나, 양고기, 오랜지, 원액등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5개 품목은 기준가격을 설정, 수입을 자유화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감자, 양파, 고추, 조기등 9개 품목은 점차적으로 수입을 개방해나가기로 했다.

이대책은 또 국제경쟁력이 없어 결국 국내생산을 포기해야할 쇠고기, 땅콩, 참깨, 小麥, 大麥, 大豆, 옥수수등 10개 품목은 수입을 개방하되 당분간 농민보호를 위해差額關稅제도를 활용, 가격안정과 국내생산기반을 함께 이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곧 이들 농수산물의 올해수입물량을 확정할 예정인데 쇠고기는 10만 t, 감자 2만t 등을 수입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국내생산을 포기할 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대한양계협회 소식

수입완제 의약품 관리강화

— 보사부, 상반기 수출입요령 변경 —

보사부는 내년도 상반기의약품등 수출입요령을 변경, 수입완제약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보사부가 마련한 이요령에 의하면 수입완제약품의 약효를 보장하기 위해 77년 7월 4일자 이전에 수입된 완제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유효성의 재평가를 실시하며 의약품수출입업자에게 수입약품 사후관리의무를 강화시키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수입금지품목인 항균제 설파이속사질의 수입을 개방하고 금수품목 중에서도 수출용원자재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마련,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약품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입업체에 대한 의약품수출 의무액을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인상 조정했다.

原乳값 인상

— 1kg에 2백9원 —

정부는 원유(原乳)값을 현행 kg당 1백

67원에서 2백9원으로 25.1% 인상,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5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와함께 시유(市乳)우유제품 가격도 올려 시유는 25%, 분유는 20%씩 각각 인상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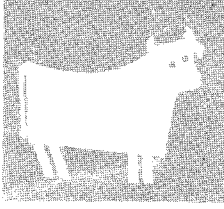
또 원유및 유제품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으로 수요를 채우지 못할 때는 부족한 양을 수입키로 원칙을 세웠으나 수입량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이 분유 수요량 40만t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4백톤 정도를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농수산부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유값은 1백80cc 짜리가 대리점가격 58원, 소비자가격 70원, 3백20cc 짜리가 대리점가격 1백10원, 소비자가격 1백30원이며 분유는 4백50g 장통당 대리점 7백40원, 소비자가격 7백70원이다

작년 축산진흥기금 6백87억 조성

— 수입육판매 수익금 5백억 넘어 —

작년말 현재 축산진흥기금조성 실적은 총 8백21억 1천 7백만원으로 당초 계획 7백43억 4천 8백만원보다 11%가 늘어났다.



15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78년중 기금조성액은 △축산물판매부가금 42억1천2백만원 △사료가격 차액납입금 1백4억1천7백만원 △마사회납입금 1억원 △수입육판매수익금 5백8억6백만원 △기금운용수익금 32억2천5백만원등 총6백87억6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및 회수금 1백33억5천7백만원을 합해 78년말현재 축산기금 조성액은 8백21억1천7백만원규모에 달했다.

한편 지난해 축산기금 운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용자	22,295
△수급조절자금	24,599
△보조금	3,109
△고정자산	506
△전출금	1,506
△예비비	237
△79년이월	29,865

농산물 슈퍼마켓 10곳 증설

— 농협계통조합공판장 중점 육성 —

농협중앙회는 농축산물의 유통사업확대책으로 올해 농산물슈퍼마켓 10곳을 증설하여 소매기구의 대형화를 기하는등 소비자 판매처리기능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에 의하면 소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개발자금 20억6천2백만원을 들

여 서울江南에 1개소의 슈퍼마켓을 新設하는 것을 비롯 중부공판장과 대구·부산 광주공판장 분장을 슈퍼마켓으로 전환 운영키로 했으며 서울4·부산1곳등 5개소의 계통조합슈퍼마켓을 新設키로 했다.

또 도매기능강화를 위해 중앙회 공판장 1개소와 계통조합공판장 1개소를 증설하고 계통조합공판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도시중심의 계통조합공판장을 중점육성하여 지역단위 농산물유통을 주도시킬 계획으로 있다.

또 중앙회 농축산물공판장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서독차관을 도입, 대구공판장을 신축하고 영등포·부산의 충무·서면분장을 개축하는 한편 농산물가격보진기금을 3억6천3백만원에서 4억2천3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소3만두·돼지6만두등 축산물을 계통출하토록 할 방침이다.

한우육, 수입육 구분판매 검토

— 축진, 기반조성에 1백75억 투입 —

축산진흥회는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축산물과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금년주요사업지침을 △축산물 수급조절과 유통구조개선 △사료의 수급조절과 품질관리 △축산진흥기금조성및 지원확대 △하부조직 확충에 두기로 했다.

11日 축산진흥회는 조도순시한 이희일 농수산부장관에게 올해 주요사업추진방향을 이같이 보고하고 가축증식기반 조성에

축산업계 동향

총 1 백75억 1 천 6 백만원의 투입, 암소육성단지 1 백개소, 비육우단지 1 백개소, 낙농단지 50 개소, 육우단지 40 개소 그리고 총 8 천ha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축산물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한우육과 수입육의 구분 판매방안을 강구하고 판매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각 포장육 시험판매 규모를 확대, 연간 1 만 5 천두분을 등급별로 포장하여 5 백개 농산물종합직매장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개공 - 스위스 합작

- 韓瑞식품 설립 -

농어촌 개발공사는 해외 선진식품 제조 기술의 도입을 위해 올해 세계적인 식품 메이커인 스위스의 베슬社 및 미국 맥도널드社와의 합작 투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프리마햄社의 육가공 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농어촌개발공사에 따르면 농개공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스위스베슬社의 합작투자계획을 확정, 한국-스위스 양국이 50 %씩 투자하는 자본금 45억원의 韓瑞 식품을 설립, 오는 4 월 공장을 착공키로 했다.

충북 청주의 제 3 공단의 1 만 5 천평부지에 세워질 이회사는 이유식, 유아식품 고단백질식품을 생산, 판매하게 된다.

이와함께 농개공은 미 맥도널드社와 50 %씩 출자, 자본금 6 억원 규모의 합작회사를 설립, 햄버거 감자칩 등 편의식품의

생산,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합작회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맥도널드社로부터 두차례에 걸친 설립의사가 전달되어 늦어도 오는 6 월까지 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농개공은 투자회사인 한국냉장으로 하여금 일본 프리마 햄으로부터 육가공 기술을 도입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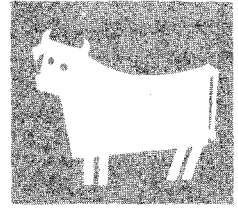
한국 냉장은 이에따라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에 28억원을 들여 1 만여평의 공장부지를 곧 매입할 방침이다. 오는 4 월부터 착공할 이 공장은 일본 프리마햄으로부터 1 단계로 기술협력을 2 단계로 原本 기술을 도입 10월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간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민간운영으로 시설근대화, 유통구조 개선해야

상의, 농·수협조직은 비능률

대한상의는 18일 정부가 농·수협직매장의 확장과 대도시에 농수산물취급종합식품점등의 개설보급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경로 단축을 꾀하고 있으나 아직도 지정 도매인 운영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시장 기능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 민간대행의 도매시장 근대화로 유통 구조개선에도 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농·수협 조직의 비상인적 특성에 따른 영업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확장의 한계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농



수협을 통한 제통출하 확대와 슈퍼 형태의 종합식료품점 실현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주요문제점으로 △시설의 부족 및 낙후 △입주 부적합 △유사업자의 범람과 유통 질서의 문란 △당국의 감독소홀과 지도행정의 결여 등이라고 지적하고 경영 내적인 요인으로 △시장의 난립과 규모의 영세성 △경쟁의 비활성화 △점포 배열의 불합리와 정보제도의 결여 및 구성원의 인식 부족등을 들고 있다.

상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투융자에 의한 시설확장의 개선·규모있는 무허시장을 과감히 양성화하여 행정권안으로 이양하고 不實市場을 정비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지역 같은 시장내에서라도 품목별·품종별로 일정구역을 설정 경매지역을 상품별로 단일화하고 경락상황을 주식시세처럼 시장내에 방송하거나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 경쟁의 활성화와 거래의 양성화를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축세 대폭 인상

— 소 두당 43, 돼지 18% —

政府는 지난 1日자로 地方稅法中 도축세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도축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번에 인상된 主要내용은 소의 경우 1마리에 2천8백원이던것이 4천원으로 돼지는 8백5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43%, 18%가 인상됐다. 이같이 도축세가 인상된것은 그동안 소와 돼지값이 올라 소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돼지는 8만5천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위조합 자립에 3백72억 지원

— 장회장, 소득증대등 9대사업추진 —

장덕회농협중앙회장은 올해 농협사업을 단위조합 자립촉진과 영농기제화, 농축산물증산및 유통사업의 확충 그리고 새마을 소득증대 종합개발사업의 확대추진등 9개 사업을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회장은 9日 이회일농수산부장관의 초도순시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3백72억원의 자금을 지원, 단위조합의 자립을 촉진, 올해 3백개의 단위조합을 자립조합으로 육성하여 모두 6백50개로 늘리고 경영의 내실화로 자율적인 운영을하도록 하고 자립후보조합에 대해 집중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영농기제화에 의한 일손부족해소를 위해 12만5천6백대의 각종 농기계를 공급하고 축산·채소·과실류등 수요가 급증하는 농축산물증산을 위해 축산단지 1백개조성, 유우 1만2백두·한우 1만5천두입식및 농협사료50만t의 공급, 원예단

축산업계 동향

지 1백40개소조성과 이의 생산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유통사업을 확충, 총 6천6백5억 원어치를 제통출하하고 47만3천t의 채소출하조정사업과 1백t의 고추·마늘·양파·사과·감귤등을 수매 비축하겠으며 3백69억원을 투입, 99개 새마을소득증대종합 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1조7천6백50억의 저축목표를 달성, 2천억원의 농사자금을 비롯, 총 8천1백53억원의 각종농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를 받은 이장관은 농협은 농민이 주인이므로 농민편에 서서 농민의 어려운점을 찾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봉사체제를 확립하라고 촉구하고 △ 단위조합 자립화 △ 원예·경제 작물증산및 유통 확대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원활화 △ 노풍피해농가에 대한 영농자금상환연기 △ 예방위주의 서성쇄신등을 적극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축진, 축산진흥기금 직접 용자키로

— 생산지원자금만 농협서 취급 —

축산진흥회는 축산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해 앞으로 생산지원자금은 농협창구를 통해 용자하되 유통및 가격안정을위한 각종 지원자금은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용자해출 방침이다.

16일 축산진흥회는 올해 축산진흥 기금 용자제도개선책의 일환으로 축산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용자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축산진흥을 위한 송아지생산 장려금 한우입식자금등 생산자금은 종전대로 농협에서 용자하되 축산물수매 비축등 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한 자금은 약1백21억6천만원을 직접 사업자에게 용자해출 방침이다.

축산진흥회는 이같은 자금을 직접 용자함으로써 용자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여신한도에 규제됨이없이 적기에 자금을 공급할수 있으며 또 농협 취급수수료 3%를 절감 기금조성확대에 큰 도움을 줄수 있을것으로 그효과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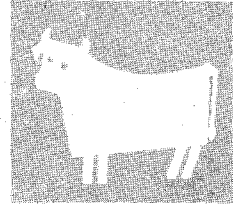
농협 사료공장 증설계획

— 82년에 년 1백40만톤 생산 —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81년까지 총 1백83억원을 투입, 연간 1백40만톤의 良質 배합사료를 생산공급하여 현재 16%선에 머물고있는 사료시장 점유율을 30%선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농협에 의하면 올해에 13억7천3백만 원을들여 年産 9만톤규모의 대단위공장을 群山에 착공, 80년부터 가동토록하고 80년부터 81년까지 2년간 1백12억5천5백만원을 들여 全南·慶南·忠南·江原 등 4개道에도 같은규모의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38억7천2백만원을 들여 기존 10개



사료공장시설을 확장, 현재 日産 7백톤의 생산능력을 1천4백톤으로 倍增시키기로 했는데 82년에 1백40만톤을 생산할경우 올해의 40만톤보다 3.5배가 늘어나게 된다.

올해, 옥수수 2백56만톤 공급

—축진 사료공장 근대화에 41억 지원—

축산진흥회는 올해 배합사료원료의 主宗인 옥수수 需要量を 2백4만3천t으로 책정하고 지난해 이월량 43만1천t을 포함 총 2백56만2천t을 도입, 이중 51만9천t은 비축해 두었다가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다.

축산진흥회는 이같은 사료수급물량의 증가에 따라 사료의 유통 및 시설근대화를 기하기위해 올해 배합사료공장 19개소에 39억5천만원과 단미사료공장 7개소에 2억1천만원등 총 41억6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한편 農水産部는 유통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축산진흥회산하에 사료검사소를 설치키로하고 대지5백평 이상을 확보 사무실 및 검사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닭, 돼지고기 증산으로 자급을 제고

—농수산부 올해 가축 18만 5천두입식—

농수산부는 축산물 증산기반을 계속 구축하기위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비육돈주산단지과 지속적 수요증대에 대비한 낙농

단지등 전국적으로 5백개 단지를 선정하여 4백39억원을 지원, 18만5천두의 가축을 입식시킬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가축증식과 아울러 가축개량으로 단위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한 능력의 종축을 확대보급하여 젖소의 경우 연간산유량을 4천6백kg에서 5천kg로 향상시키고 한우는 도살 체중을 3백80kg에서 4백50kg로 늘리며, 돼지는 90kg 규격돈생산을 1백90일에서 1백60일로 단축시켜 생산비를 줄이며, 닭은 년 2백10개의 계란생산을 2백40개로 증대시켜 양축농가의 실질소득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농수산부는 육류의 자급율을 높이기위해 국내 증산이 가장용이한 돼지고기와 닭고기생산에 주력, 우수종축의 보급확대와 省力飼育을 유도하여 증산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굳혀 나가기로 했다.

가축사양기술지도에 역점

—서울시 축산물 단위생산 제고—

서울시는 올해 축산진흥사업을 단위당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두고 양축농가에 대한 사양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16일 서울시당국은 지난해에 유축농가를 늘리기 위해 각종 시책을 펴왔으나 43%의 저조한 실적을 보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 올해부터는 사육 권

축산업계 동향

장보다는 사육의 과학화를 위한 지도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 비육사업의 강화로 단위생산성제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5개동을 대상으로 가축위생지도 사업을 비롯 조사료 공급확대등으로 한우증식을 꾀하고 효과적인 배합사료 사용등을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한우 23%가 간디스토마

—축진, 올해 20만두 검진—

축산진흥회는 한우 간디스토마를 구제하기위해 공수의사를 동원, 년내 20만두를 검진할 계획이다.

17일 축진에 따르면 한우의 간디스토마 전염율은 현재 전국 평균 23%로 추정되며 특히 산간지방번식암소의 감염율은 50~60%에 달해 간디스토마 구제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축진은 한우 20만두를 검진하고 4만두에 약품을 투여하여 간디스토마를 구제할 계획인데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었을경우 피해율은 체중감소가 45%(18개월령)에 달한다는 것이다.

미국, 육류소비감소 현저

1978년, 전년보다 1인당 1.8kg 줄어
브로일러는 1.3kg 늘어난 20.21kg

미 농무성에 의하면 1978년도 미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전년도 보다 1.8kg가

적은110kg가 될 것이라 한다. 특히 쇠고기 소비량은 1977년보다 2.7kg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고 veal (송아지고기)이나 양고기의 소비량이 감소되어 獸肉 전체의 소비량은 1977년의 87.5 kg보다 3.2kg 적은84.3kg가 될 것이라 한다.

한편 닭고기, 터키고기를 포함한 가금육의 소비량은 1977년 보다 1.4kg가 많은 25.9kg가 될 것이라 하는데 이중 브로일러 소비량은 1977년도의 18.9kg보다 1.3kg가 많은 20.2kg가 될 것이라 한다. 그리고 1979년의 쇠고기 소비량은 1978년보다 2.3kg 내지 4.1kg가 적은80.3kg에서 82.1kg 정도가 될 것인 반면 돼지고기 소비량은 0.5kg내지 1.8kg 정도 많아질 것이며 기타 수육소비량의 변동을 감안한 전체 수육 소비량은 前年보다 0.9kg 내지 4.5kg 정도 감소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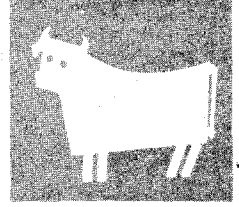
한편 1979년도의 국민 1인당 가금육소비량은 前年보다 1.4kg내지 1.8kg 정도 많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ewletter)

미국물 매년 6백만톤 구매예정

—중공, 연간 1천만톤이상 수입의존—

중공은 미국과 수교함에 따라 대미 곡물 수입량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공은 최근 미농부장관 일행이 북경을 방문했을때 미국산 곡물을 해마다 5백만



톤 ~ 6 백만톤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공은 앞으로 매년 1 천만톤 이상의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중공은 소맥 3 백만톤과 옥수수 2 백 30만톤 등 5 백30만톤의 곡물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바 있으며 최근에 와서 2 만5 천 4 백톤의 대두와 8 만톤의 콩기름을 구입했었다.

소, 미국산곡물 추가구매

— 옥수수40만톤, 소맥22만 5 천톤 —

소련은 올해 인도조건으로 미국산 곡물 62만 5 천t을 추가구매했다고 12일 美농무성이 발표했다.

美농무성 관리들에 따르면 이중 옥수수 수출은 40만t, 소맥수출은 22만 5 천t을 각각 차지했다.

소련은 미국과 매년 최저 6 백만t의 미국산소맥 및 옥수수를 수입하기로 하는 곡물구입협정을 체결했으며 협정발효 3 년째인 78년~79년도 (78년10월~79년 9 월말) 중 약 1 백10만t의 소맥과 2 백20만t의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해갔다고 美농무성은 밝혔다.

작년 9 월말로 끝난 77~78년도중 소련의 대미곡물수입은 약 1 천 4 백80만t에 달했었다.

「국군장병에게 계란 보내기운동」 전개사항

○ 김중경(부산, 경남지부장) : 계란 1,690

개, 사과 2 관, 꿀 1 관, 설탕 3 kg. 떡 2 되 김치 1 단지를 인근 군부대에 전달.

○ 제주도지부(지부장 : 고경무) : 계란 24,527

개를 인근 군경 및 고아원, 양로원 등에 전달

○ 일산계우회(회장 : 최중록) : 계란 8,100

개를 제 9 사단에 전달.

○ 덕계계우회 : 닭 200수를 인근 군부대에 전달.

○ 한국계우회 : 계란 10,000개를 5602부대에 전달.

○ 홍성양계친목회 : 계란 2,100개를 인근 군부대에 전달.

○ 서천 계우회 : 육군 제8361부대에 계란 1,500개를 전달

○ 인천 계우회 : 계란 4,200개를 인근 군부대에 전달.

○ 의정부계우회 : 계란 12,000개를 보병 제 73연대에 전달

업계 동정

○ 협신가축약품상사(대표 : 임치환) : 지난 12월22일 오후 3 시부터 6 시까지 이천군 이천읍 사회복지회관에서 최창해(본회 이사) 씨와 원송대(중앙약품 상무) 씨를 강사로 모시고 양계 및 양돈의 사양관리와 질병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참석인원은 70여명.

○ 김해계우회 : 지난 12월18일 오후 2 시 삼계농장영양센터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병지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축산업계 동향

- 삼원물산(주) : 요소사료인 대용 단백질 사료 하이프로민과 하이민, 하이라이트를 생산 판매해오던 대아농이 삼원물산(주)으로 명의를 변경 지난 78년 12월 초 새로이 출범하였다. 대표이사에 오무웅(현 내외축산사장), 상무이사에 배재환(전 삼양지대 상무), 영업부장에 이용린(전양북개발)씨.
- 차두홍(한일육종농원대표) : 미국ATLANTA에서 개최되는 Southeastern International Poultry Trade show에 참가하고 일본 및 대만의 축산업계를 시찰하기 위해 1월 23일 출국했다.
- 송두진(지산중계부화장 대표) : 제19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경영기술 본상을 수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축연을 1월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대도클럽에서 가졌다.
- 미국대두협회(America Soybean Association)는 조만간 한국에 지부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전화 261-1118)로 문의하시기 바람.

인 사

- 칠성농장(대표: 김인환) : 반길성 상무를 의원 면직하고 부사장에 김범환, 상무에 박창기, 하주일, 연구실장에 박인상, 영업1부장에 이용식, 영업2부장에 하갑수, 제1농장장에 김용준, 영업과장에 윤인기, 경리과장에 서형식씨를 각각 승

진및 전보발령 또 강만형씨를 영업부에 특채.

- 대한제당사료부 : 조원준(전푸리나 코리아)씨를 지역부장으로 특채.
- 삼우화학(주) : 최병순씨가 영업이사로, 최상남씨가 영업부장으로, 김영언, 한상훈씨가 영업과장으로 각각 승진하고 길재용씨를 영업부주임으로, 주재철씨를 부산, 경남 출장소장으로 김갑석씨를 신입사원으로 각각 채용.
- 협신가축약품상사 : 사세확장으로 전영철(전 호산나 종합 축산상사)씨를 특채.
- 한일사료(주) : 안철희(전 한일농원)씨를 영업과장으로 기용.
- 과학사료 : 김부운(전 삼지유업)씨를 영업부에 특채.
- 위림상사(주) : 심세환씨가 영업부차장으로 승진.
- 내외축산사 : 남쾌현(전 은행계 편집부)씨를 편집부 주임으로 권혁란(전 현대건설)씨를 편집부사원으로 특채.

사무실이전, 전화번호 및 증설

- 제주도 지부(지부장: 고경무) : 태홍가축약품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전화는 (2)0195, 3440으로 종전과 동일
- 안양분회(분회장: 박성원) : 1월20일부터 안양시 안양4동782-17로 사무실을 이전. 12) 4900으로 전화는 종전과 동일
- 태홍가축약품(대표: 김태열) : 제주시



청량리가축약품

◎ 병리검사 무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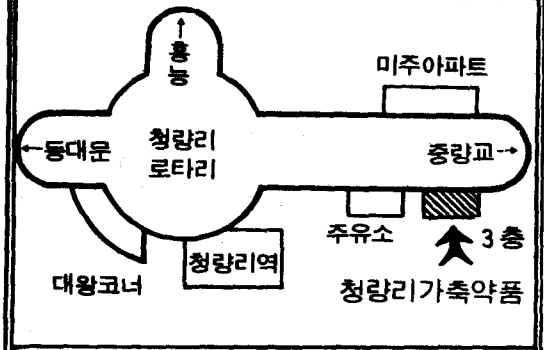
◎ 호흡기병(CRD) 특효약

◎ 빠다리병(포도상구균증) 특효약

호평리에 발매중!

* 지방주문환영

서울동대문구전농 2동 597-32
(한국육계회연락처) ☎ (주간) 966-8780
(야간) 49-4878



건입동 1430의 3으로 사무실을 이전.
전화는 (2)5240, 3440

- 서울시 농축과 : 구 국회도서관 (시민회관 별관옆)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 과학축산(대표: 이태일) :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152 동선빌딩 3층으로 사무실을 이전. 전화는 (792)7887
- 미원 주식회사(대표: 임철수) : 서울 사무소를 강서구 가양동 52 김포공장으로 이전. 전화는 (66)3391~6

전화번호 변경

- 대구축협 및 본회경북지부 : 대구 (72) 3091, 2392, 3485로 변경
- 신신부화장(대표: 이상구) : 대구 (72) 4196으로 변경.
- 신일부화장(대표: 정재덕) : 대구 (72) 2481로 변경.
- 한일농원 대구사무소 : 대구 (72)3039로 변경
- 삼일부화장(대표: 정이규) : 대구 (72) 3231로 변경.
- 금성사료 : 1월 15일부터 부산 (93)1895~8으로 변경.
- 호산나부화장 : 사세 확장에 따라 전화를 증설
서울사무실(778) 7444~5
제 1농장 경기도 광주 2025
제 2농장 경기도 광주 2667.